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05





Contents

※ 2025.11.20(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1.13.~2025.11.1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2025.11.14) ····································
- 한·일, 농업로봇 및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확대 논의(2025.11.19) ··················1
- 시흥시, 어린이 공원 바닥 친환경 코르크로 재포장(2025.11.13) ················2
- 임실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확정 및 전략 심의(2025.11.13) ···················2
- 광명시, 2026년 본예산 1조 3471억 편성··· 탄소중립 집중(2025.11.13) ·············2
- 영양군, 탄소중립 실천 반려식물 보급 행사 개최(2025.11.13) ·························3
- 부안남초, 전교생 대상 탄소중립 체험 한마당 운영(2025.11.13) ························3
- 금산군어린이집연합회, 유아 대상 탄소중립 실천 행사 진행(2025.11.13) ·············4
- 대구 엑스코, 철강·비철금속 산업전 'SMK2025' 개막(2025.11.13) ·················4
-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승인··· 2033년까지 가동 연장(2025.11.13) ·················4
- 광주 남구, 탄소중립 우 수 사례 장관상 수상(2025.11.13) ····································
- 화성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성과 공유 회 개최(2025.11.13) ···································5
- 포항 유강유치원, 플로깅 및 친환경 체험 활동 실시(2025.11.13) ························6
- 인천시, 한국환경 공단 과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협약(2025.11.14) ·················6
- 성 북 구의회, 탄소중립배움터 개관 앞두고 현장 점검(2025.11.17) ·····························6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AI 등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 촉구(2025.11.19) ················7
■ AI 분야 7
- 정부, 해외 AI 첨단 인재 유치 위해 최대 1억 원 연봉 지원(2025.11.13) ·······7
- 김미애 의원, AI 기반 교통안전시설 지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2025.11.13) ·············8
- 충남도, 'Al 대전환' 선포… 산업·공공 전 분야 생태계 구축(2025.11.13) ·······8
- 화성시, 2025년 AI 정책제안 공모전 성료… 6건 선정(2025.11.13) ··················8
- 대구시, 중앙지방협력회의서 AI 로봇 수도 국비 지원 요청(2025.11.13) ·······9
- 광주시, 대통령실에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2025.11.13) ············9
- 울산시, 군함 유지보수 위한 AI 로봇 시스템 개발 착수(2025.11.13) ·······10
- 울산서 영호남 제조 AI 기술 교류회 개최(2025.11.13) ·······10
- 광주, 수소와 AI 융합 산업으로 기업 유치 승부수 띄워야(2025.11.13) ·······10
- 옥천군, 정재승 KAIST 교수 초청 'AI 시대 뇌과학' 강연 개최(2025.11.13)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2
■ 탄소중립 분야12
- 남부발전, 2035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 탄소중립 강화(2025.11.18) ·······12
-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 사업자 모집(2025.11.13) ·······················12

■ AI 분야 13
- 공항철도, AI CCTV로 에스컬레이터 캐리어 낙하 사고 예방(2025.11.13) ·······13
- KMI, 해양수산 현안 해결 위한 'AI 활용 연구 경진대회' 개최(2025.11.13) ·······13
- 경기관광공사, AI 활용해 홍보·행정 업무 효율 혁신(2025.11.13) ·······14
- 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세계 최초 OECD 품질 인증 획득(2025.11.13) ·······14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5
■ 탄소중립 분야 15
- 현대차그룹,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 참여(2025.11.13)13
- 강원대, 탄소감축과 이끼산업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2025.11.14)15
■ AI 분야 16
- 삼성물산, 'AI 네이티브' 건설사 전환 선언··· 로드맵 제시(2025.11.13) ·······16
- 스트라드비젼-AMD, 자율주행 AI 인식 기술 고도화 협력(2025.11.13) ·······16
- 이노그리드, 'AI 중심 데이터센터' 비전 선포(2025.11.13) ·······················17
- 삼성인력개발원, AI·XR 결합한 몰입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2025.11.13) ······17
- 앤스로픽,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73조 원 투자 발표(2025.11.13) ·······17
- 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에 혼잡도 분석 및 무인 결제 AI 도입(2025.11.13) ·······18
- KAIST 창업 기업 '배럴아이', 140억 투자 유치… 딥테크 성과 입증(2025.11.13)18
- 미국 고용 시장 한파, AI 확산으로 주간 1만 개 일자리 증발(2025.11.13) ·······19
- 10월 ICT 수출 역대 최대 233억 달러… AI 반도체 수요 견인(2025.11.13) ·······1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2025.11.14)
	- 윤준병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5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2030년 35%, 2045년 85%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고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일정 수준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설정을 의무화함
	- 윤 의원은 현행법이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헌재의 지적을 반영하여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
	를 설명함
중앙부처	
	□ 한·일, 농업로봇 및 탄소증립 기술 공동연구 확대 논의(2025.11.19)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54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농업로봇 표
	준화, 탄소중립 논 재배 기술 등 미래 농업 핵심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번 회의에서는 저탄소 기술 교류와 기후위기 대응 작물 생산 환경 개선 등 3가
	지 공동연구 과제가 집중 검토되었으며 일본 대표단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핌
	- 양국은 1968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온 기술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농업로봇과 탄
	소중립 등 미래 농업 이슈 해결을 위한 R&D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시흥시, 어린이공원 바닥 친환경 코르크로 재포장(2025.11.13) - 시흥시가 총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상공원 등 3곳의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2만 2천800㎡를 친환경 탄소중립 소재인 코르크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함 - 코르크는 굴참나무 껍질만을 채취해 산림 훼손이 없으며 생산・분해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적고 소음 저감 및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여 안전성과 환경을 모두 잡은 소재임 - 시민들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부상 위험이 적고 고무 냄새가 없어 쾌적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타 공원에도 친환경 포장재 교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지자체	 □ 임실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확정 및 전략 심의(2025.11.13) - 임실군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기후 대응 공동체 임실'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최종 확정함 - 군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수립된 이번 대책은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물관리, 농수산, 건강 등 6개 부문 46개 세부 사업을 포함함
	- 군은 확정된 대책을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매년 이행 점검과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 광명시, 2026년 본예산 1조 3471억 편성… 탄소중립 집중(2025.11.13)
	- 광명시가 전년 대비 18.8%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총 1조 3,471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탄소중립 등 4대 핵심분야에 집중함
	-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중립, 정원도시 조성, 도시숲길,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관련 분야에 총 1,460억 원의 막대한 재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제목 및 주요 내용 을 편성함 - 박승원 시장은 이번 예산이 정부 국정과제와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구체화한 전략적 투자임을 강조했으며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영양군, 탄소증립 실천 반려식물 보급 행사 개최(2025.11.13) - 영양군이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빈 화분을 가져온 군민에게 공기정화식물인 크로톤을 무료로 나눠주는 탄소중립 실천 및 반려식물 보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함 -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주관 및 힐링가든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물 심기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함 - 군과 연수원은 이번 행사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환경 교육과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함
	 □ 부안남초, 전교생 대상 탄소증립 체험 한마당 운영(2025.11.13) - 부안남초등학교가 'Green On, 탄소제로 부안남!'을 주제로 전교생이 운영과 체험을 번갈아 맡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체험 한마당 행사를 실시함 - 학생들은 딸기 카나페 만들기, 보드게임, 친환경 비누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 등 다양한 부스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고 창의적인 탐구 시간을 가짐 -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며 생활 속 실천을 다짐했고 학교는 지속적인 환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어갈 것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금산군어린이집연합회, 유아 대상 탄소증립 실천 행사 진행(2025.11.13) - 금산군어린이집연합회가 금산학생체육관에서 관내 21개 어린이집 유아 약 200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놀이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개최함 - 아이들은 바다 생물 보호를 위한 푸른바다거북 키링 만들기와 지구 지키기 독서대 제작 등 9개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짐 - 김정순 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대구 엑스코, 철강·비철금속 산업전 'SMK2025' 개막(2025.11.13) - 대구 엑스코에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AI 기반 제조혁신과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기술을 조망하는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SMK2025)'이 개막함 -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 등 95개 주요 기업이 참가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저탄소제품, 이차전지 소재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과 ESG 생산 체계를 집중적으로 선보임 - 전시 기간 중 글로벌 통상 대응전략 및 ESG 세미나가 진행되며 기계산업대전과의 동시 개최로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제조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승인… 2033년까지 가동 연장(2025.11.13)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 7개월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함에 따라 2033년 4월 8일까지 10년 더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 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줄줄이 예고된 원전 10기 계속운전 심사의 첫 번째 통과 사례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한수원 측은 이번 승인이 AI 및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광주 남구, 탄소중립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2025.11.13) - 광주 남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 참여형 '햇빛 연금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함 - 신효천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의 73%를 대체하고 전국 1위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률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함 - 구는 탄소중립과 신설 및 광주 최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등 행정적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로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큼
	 화성시, 탄소증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성과공유회 개최(2025.11.13) 화성특례시가 5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진행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성과 공유회를 열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한 4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책을 최종 발표함 제안된 서비스는 기업과 시민을 잇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공공건물 에너지 통합 조회 시스템, 스마트 탄소중립 쉘터 등임 시는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스마트 빌리지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실제 시정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증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포항 유강유치원, 플로깅 및 친환경 체험 활동 실시(2025.11.13) - 포항 유강유치원이 '2학기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유아기부터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탄소중립 실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일주일간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운영함 - 원아들은 기후 변화 원인을 배우고 직접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과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 - 유치원 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놀이 중심의 환경 교육을 지속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임
	 □ 인천시, 한국환경공단과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협약(2025.11.14) - 인천시가 관내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온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함 - 양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프로그램 공동 추진, 지역사회 상생 기여, 녹색산 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전문성과 행정력을 결합해 협력할 예정임 - 유정복 시장은 탄소중립이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임을 강조하며 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천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힘
	 □ 성북구의회, 탄소증립배움터 개관 앞두고 현장 점검(2025.11.17) -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개관을 앞둔 정릉로 소재 121.3㎡ 규모의 '성북탄소 중립배움터'를 방문해 시설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함 - 해당 시설은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원들은 주민 편의와 실효성을 꼼꼼히 살핌 - 정해숙 위원장은 탄소중립배움터가 미래 세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환경 실천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AI 등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 촉구(2025.11.19)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 과정에 탄소국경세, AI 등 급변하는 미래 트렌드와 국제 흐름 반영이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함
	 위원들은 시대 변화에 맞춘 유연한 교육 체계 개편과 시의성 있는 이러닝 과정의 신속한 제작을 요구했으며 도립대의 예산 집행 지연과 시설 관리 부실 문제도 질타함 의회는 정량적 성과보다 실질적인 교육 기획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정부, 해외 AI 첨단 인재 유치 위해 최대 1억 원 연봉 지원(2025.11.13)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연봉 격차로 인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AI・반도체 등 8대 첨단산업 분야 해외 경력직 유치 시 연간 최대 1억 원의 연봉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신설함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인력 절반 가까이가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고 해외 연봉이 국내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청년층고용이 위축되는 등 국내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김미애 의원, AI 기반 교통안전시설 지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2025.11.13)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AI 신호 제어, 자율주행 감시 로봇 등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단속 장비의 설치 및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이번 법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현장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김 의원은 AI 기반 교통 시스템이 사고 예방과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지자체	 ★남도, 'AI 대전환' 선포… 산업・공공 전 분야 생태계 구축(2025.11.13) - 충청남도가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힘쎈충남 AI 대전환'을 공식 선포하고, 글로벌 빅테크 및 국내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충남 AI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도내 산업, 농축수산, 공공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나섬 - 도는 벤처 펀드 3배 확대, AI 특화 인력 1만 5,000명 양성, 제조 공정 AI 활용률40% 달성 등 6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임 - 김태흠 지사는 충남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 AI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확보를 통해 강력한 실행 체계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화성시, 2025년 Al 정책제안 공모전 성료… 6건 선정(2025.11.13) - 화성시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Al 도시를 목표로 진행한 '2025년 Al 정책제안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접수된 92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행정 효율화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우수 제안 6건을 최종 선정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시민 부문 대상으로는 AI 음성 인식 기술로 민원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지능형 통합 콜센터'가, 공무원 부문 대상으로는 산림 화재 및 사고를 실시간 탐지・예측하는 '피지컬 AI 기반 산림 휴양시설 관리 모델'이 각각 뽑힘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AI 기술을 실질적인 행정 문제 해결에 접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힘
	 □ 대구시, 증앙지방협력회의서 AI 로봇 수도 국비 지원 요청(2025.11.13) - 대구시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TK신공항 건설과 함께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안전인증센터 구축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함 - 이는 지난 10월 대통령 타운홀 미팅의 후속 조치로, 대구시는 지역 주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부 차원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필수적임을 강조함 -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대구시는 이를 발판으로 로봇과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함
	 광주시, 대통령실에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2025.11.13) - 강기정 광주시장이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을 만나 광주 전역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AI 산업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함 - 강 시장은 NPU,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전체를 혁신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하 수석 역시 광주의 AI 생태계를 높이 평가하며 이에 공감함 - 하 수석은 정부가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재확인했으며,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실증도시 도약을 추진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울산시, 군함 유지보수 위한 AI 로봇 시스템 개발 착수(2025.11.13) - 울산시가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총 93억 원을 투입, 군함 선체 청소와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AI 기반 함정 MRO용 자율작업 로봇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함 - 이번 프로젝트는 벽면 등반형 도장 로봇, 수중ㆍ육상 복합 청소 로봇, AI 예지보전 시스템을 통합 개발하여, 기존 숙련공에 의존하던 위험한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HD한국조선해양 등이 참여해 조선업의 자동화 기술을 국방 MRO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지역 로봇·AI 기술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지자체	 ■ 울산서 영호남 제조 Al 기술 교류회 개최(2025.11.13)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제2차 영호남 Al 확산 기술교류회'를 열고 영남의 제조 분야와 호남의 농업 분야 Al 솔루션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 간 비즈니스 매 칭을 진행함 -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주요 수요 기업과 Al 솔루션 공급 기업 100여 명이 참석해 공정 관리, 안전 감시 등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45건의 기술 매칭 성과를 도출함 - 진흥원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울산을 중심으로 제조 Al 산업 거점화를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힘
	 □ 광주, 수소와 AI 응합 산업으로 기업 유치 승부수 띄워야(2025.11.13) - 광주시가 전통적인 세제 혜택이나 용지 개발을 넘어, 지역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 에너지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옴 -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청정 전력을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인프라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공급하고, 광주가 이를 AI로 제어·관리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폴리텍대학 김환 교수는 "AI와 청정에너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지역 내양성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인재-에너지'가 결합된 전략만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고 강조함
	 □ 옥천군, 정재승 KAIST 교수 초청 'AI 시대 뇌과학' 강연 개최(2025.11.13) - 충북 옥천군이 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국내 저명한 뇌과학자인 정재승 KAIST 교수를 초청하여 'AI 시대,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라는 주제로특별 강연을 14일 개최함 -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의 변화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내어 주민들에게 깊은 통찰과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될 예정임 - 군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다양한 명사 특강에 1.8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며, 내년에도 트렌드에 맞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남부발전, 2035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 탄소증립 강화(2025.11.18) 한국남부발전이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2035 중장기 경영전략'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경영 혁신의지를 다짐함 2035년까지 무탄소 발전량 20TWh 달성, 온실가스 감축률 62%, ESG 경영 실현 등 4대 전략 방향과 12개 세부 과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임 김준동 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며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함
지방기관	 □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 사업자 모집(2025.11.13)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전 2040'의 핵심 사업으로 공항 내 2만 3,000㎡ 부지에 AI 데이터센터, R&D 센터 등을 구축하는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12월 22일까지 모집함 - 이번 사업은 자율 항공관제, 물류 자동화 등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하며, 사업자는 시설을 직접 개발해 최장 5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공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술적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완료했으며,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을 단순 교통 시설을 넘어 전 산업의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AI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힘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공항철도, AI CCTV로 에스컬레이터 캐리어 낙하 사고 예방(2025.11.13) - 공항철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빈번한 캐리어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객체인식 지능형 AI CCTV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함 - 이 시스템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면 즉시 경고 방송을 송출해 승객의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이며, 여행객 이용이 많은 홍대입구역에서 시범 운영 후효과를 검증해 전 역사로 확대할 예정임 - 박대수 사장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스마트 도시 환경 구축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함
	 □ KMI, 해양수산 현안 해결 위한 'AI 활용 연구 경진대회' 개최(2025.11.1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기후변화, 인구소멸 등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AI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연구 경진대회를 12월 5일까지 진행함 - 이번 대회는 KMI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데이터 기반의 분석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해양수산 문제 해결에 접목할 방법론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정희 원장은 AI가 미래 예측과 정책 판단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문화와 AI 기반 해양수산 연구 생태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경기관광공사, Al 활용해 홍보·행정 업무 효을 혁신(2025.11.13) - 경기관광공사가 생성형 Al를 도입해 홍보 영상과 음원을 제작하고, 엑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홍보와 행정 전반에서 혁신적인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임진각평화누리 안내방송 음원 제작, Al 캐릭터 '달G'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 챗GPT 기반 여행 코스 추천 등 다양한 Al 활용 사례가 비용 절감과 저작권 문제해결에 기여하며 호평을 받음 - 공사는 전 직원 대상 Al 실무 교육을 통해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조원용 사장은 간부진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Al 활용 선도 공공기관으로 자리매 김할 것을 주문함
	 □ 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세계 최초 OECD 품질 인증 획득(2025.11.13) -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AI 정수장이 물 관련 시설로는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OECD의 인프라 품질 인증인 '블루닷 네트워크 (BDN)'를 획득함 - 이 AI 정수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약품 투입량, 배수지 수위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임 - 공사는 이번 국제 인증을 계기로 기후 위기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물관리 모델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흥국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 등 글로벌 물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현대차그룹, 평택항 탄소증립 수소항만 구축 참여(2025.11.13) 현대차그룹이 평택시,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수소 항만으로 조성하여 국가 수소 생태계를 확장하기로 합의함 현대차그룹은 수소 트럭 및 충전소 도입, 그린 암모니아 수입, 육상전력장치(AMP) 확대 등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평택항을 기반으로 녹색 해운 항로의 기틀을 다지고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구조를 확보하여 국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계획임
대학교	 □ 강원대, 탄소감축과 이끼산업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2025.11.14) - 강원대학교에서 학계, 지자체, 군부대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해법으로 이끼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림 - 전문가들은 이끼 1㎡가 소나무 10그루와 맞먹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가졌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형 녹색산업 모델로서의 가치를 집중 조명함 - 이번 포럼은 강원형 탄소감축 모델 발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으며 산・학・관 협력을 통해 이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물산, 'AI 네이티브' 건설사 전환 선언… 로드맵 제시(2025.11.13) - 삼성물산, 'AI 네이티브' 건설사 전환 선언… 로드맵 제시(2025.11.13)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본사에서 '2025 AI Day'를 개최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AI 네이티브' 건설사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향후 3년간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AWS와 공동 개발한 3대 AI 에이전트인 'AI-ITB Reviewer(입찰 분석)', 'AI-Contract Manager(계약 리스크 관리)', 'AIPEX(현장 데이터 분석)'를 시연하며 리스크 식별과 인사이트 발굴 등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공유함 - 오세철 사장은 복잡한 건설업에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내년부터 개발된 AI 에이전트를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해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적으로 거듭날 것을 다정함 - 스트라드비전-AMD, 자율주행 AI 인식 기술 고도화 협력(2025.11.13) - AI 기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라드비전이 AMD와 협력하여 차세대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CES 2026'에서 공동 기술 성과를 공개하기로 함의함 - 이번 협력은 스트라드비전의 'SVNet' 소프트웨어를 AMD의 차량용 시스템은침(SoC)에 통합하여, 전력 효율과 연산 성능을 동시에 갖춘 레벨 4 수준의 고성능자율주행 플랫폼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양사는 객체・차선 인식 등 정밀 기능을 강화해 차량 개발 기간 단축과 시스템 복잡도 완화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며, CES 2026에서 실시간 멀티 카메라 인식 데모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이노그리드, 'AI 중심 데이터센터' 비전 선포(2025.11.13) - 클라우드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가 기술 컨퍼런스 'IC3 2025'를 열고 단순 솔루션 기업을 넘어 AI가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용하고 장애를 예측하는 '지능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함 - 김명진 대표는 에티버스 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설계부터 운용까지 아우르는 전략 파트너로 역할을 확장하고,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등과 개방형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함 - 이날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미래 방향, 가상화 솔루션 정책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기술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 혁신을 가속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됨
	 □ 삼성인력개발원, AI·XR 결합한 물입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2025.11.13) - 삼성인력개발원이 기존 강의실 교육의 한계를 넘어 몰입도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XR' 헤드셋을 활용한 차세대 AI·XR 결합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함 -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직급을 대상으로 명상, 역사 체험, 리더십, 외국어, 토론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가상 공간에서의 직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개발원은 연간 2만 명 이상의 임직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예정임
	 ● 앤스로픽,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73조 원 투자 발표(2025.11.13) - 오픈AI의 경쟁사인 앤스로픽이 미국 텍사스와 뉴욕 등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약 500억 달러(73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함 - 앤스로픽은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플루이드스택과 협력하여 2026년 첫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AI 인프라 분야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임 - 시장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지출이 AI 버블 우려와 전력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앤스로픽은 기업 고객 증가와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를 강행하고 있음
	 □ 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에 혼잡도 분석 및 무인 결제 AI 도입(2025.11.13) - 삼성웰스토리가 구내식당 이용 편의성을 혁신하기 위해 본사 식당에 비전 인식기술을 활용한 'AI 피플카운팅'과 'AI 스캐너'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를 전국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임 - 'AI 피플카운팅'은 식당 내 혼잡도와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며, 'AI 스캐너'는 바코드가 없는 수제 간편식도 이미지를 인식해 1초 만에 결제할수 있는 무인 시스템임 - 회사는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을 개발했으며, 향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등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예정임
대학교	 □ KAIST 창업 기업 '배럴아이', 140억 투자 유치… 딥테크 성과 입증(2025.11.13) - KAIST 창업원이 육성한 의료 AI 스타트업 '배럴아이'가 독자적인 정량 초음파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함 - 이는 리벨리온, 파네시아 등에 이어 KAIST의 연구 기반 딥테크 창업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대학의 기술이 창업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광형 총장은 KAIST의 창업 모델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연구자 중심의 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미국 고용 시장 한파, Al 확산으로 주간 1만 개 일자리 증발(2025.11.13) -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와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AI 도입 확대와 기술 기업의 인력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술 기업들이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면서 10월 감원 규모가 닷컴 버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4주간 주당 평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과도한 인력 충원 조정과 AI 기술 확산이 맞물린 결과로 보며, 이러한 고용 시장의 냉각 조짐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타	 □ 10월 ICT 수출 역대 최대 233억 달러… AI 반도체 수요 견인(2025.11.13) 지난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한 23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이러한 실적 호조는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인 HBM과 DDR5 등 반도체 수출이 25.4% 급증한 데 기인하며, 특히 대만(60%↑)과 미국(52.1%↑) 등 주요 시장으로 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임 반면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GPU와 중대형 컴퓨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련 부품 수입액도 늘어났으나, 전체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 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